

200자 안내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로버트 길핀 지음 / 강문구 옮김

헤게모니 국가가 중심이 되어 세계체제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다른 저발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헤게모니 안정이론'을 기저로 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국제관계의 성격과 동력을 분석한 책. 정치경제학의 세가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무역, 통화, 투자 등에 있어서의 국제경제체제가 정치체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인간사랑 / A5신 / 572면 / 7000원

인도불교

나라야스아키 지음 / 정호영 옮김

문화사의 입장에서 인도불교사를 기술한 책. 고대 인도의 종교로부터 불교의 성립과 현대불교에 이르기까지의 불교도의 문화를 총체적인 형태로 밝히고 그 전승과 전파의 양상을 확인한다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각종 문헌자료와 고고학, 미술사, 역사학, 인류학 등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불교문화의 면모를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민족사 / A5신 / 352면 / 5500원

언더우드

L.H. 언더우드 지음 / 이만열 옮김

한국에 온 첫 개신교 복음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전기. 1859년의 출생으로부터 교육과정과, 선교사로서 보낸 31년간의 한국생활, 1916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와 활동 등을 그의 부인인 저자가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의 기록들은 단순히 언더우드 개인의 생애를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 한국기독교의 면모를 살피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

기독교문사 / A5신 / 392면 / 5500원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조재길 지음

'코리아스트리트저널'지의 발행인인 저자의 북한방문 취재기. 저자는 선거와 8월의 범민족

대회에 즈음하여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데, 이 책은 그때 취재한 북한 사회의 여러가지 면모들을 기술한 것이다. 감상적 민족주의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뛰어넘어 북한사회와 체제의 실상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삼민사 / A5신 / 336면 / 4500원

사랑의 텔레파시

윤금초 지음

'아름다운 성, 순결한 사랑을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시인인 저자가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해 펴낸 지침서이다. 여러학자들의 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춘기의 성적변화, 이성교제, 사랑의 본질과 애정의 함수관계, 우리시대의 성에 대한 의식과 그에 따른 문제 및 외국의 성교육 형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이해를 쉽게 했다.

어문각 / A5신 / 286면 / 3500원

잃어버린 하느님 찾기

버지니아 몰렌코프 지음 / 박성진 옮김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여성신학자인 저자가 전하는 해방의 메시지.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느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우리시대의 갈등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대인의 복음서이다.

깊이와 넓이 / A5신 / 224면 / 3800원

2000년대 집투자 땅투자

김양석 지음

중앙부동산연구소장인 저자가 그동안의 부동산 현상체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리와 투자에 대해 기술한 책. 부동산 財테크라면 으레 투기로 보려는 극단론을 넘어서서 부동산이 우리 생활의 주요한 경제행위의 대상이라는 점에 역점을 두어 내집 장만은 물론, 부동산 투자 및 개발의 방법론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부록으로 전국 투자 유망지역의 도면을 수록하고 있다.

동학사 / A5신 / 380면 / 4600원

암살D-데이

제프리 아처 지음 / 정성호 옮김

매혹적인 스토리텔러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저자가 「카인과 아벨」의 속편격으로 내놓은 「Shall we Tell The President?」의 완역본.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음모와 이를 분쇄하려는 FBI 수사관의 활약상을 그린 장편추리소설이다. 암살 D데이 6일전의 긴박

감, 살인과 배신, 사랑이 뒤엉킨 사건을 속도감 넘치는 필치로 그려내고 있어 추리소설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태성 / A5신 / 332면 / 4000원

문둥이 성자 다미안

존 패로우 지음 / 김영호 옮김

남태평양의 외딴 섬에 격리 수용된 나환자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다미안 신부의 성자적 생애와 인간적 면모를 그린 전기. 이 책은 특히, 나환자들의 친구요 의사, 형제로서 살다가 그 자신도 나환자가 되어 생애를 마친 그의 삶의 이력뿐만 아니라, 그의 투명하고 고집스러운 성품까지도 그대로 노출시켜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그의 삶을 보다 생생하고 진실되게 전달해준다.

정신세계사 / A5신 / 256면 / 3800원

5시간 30분

정전섭 지음

제1회 한국추리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가의 장편추리소설.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인기절정의 톱탈런트가 시체로 발견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고도의 범죄수법과 이를 밝혀내는 날카로운 추리력 뿐만 아니라 5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의 치밀한 구성이 돋보인다. 기존의 추리소설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감성적인 문체도 이 소설의 특징이다.

심지 / A5신 / 364면 / 4000원

인생이 뭐 객관식 시험인가요

임정진 지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등 청소년 대상의 기획소설로 화제를 모은 저자의 세번째 기획장편. 가장 아름다운 심대의 꿈과 희망을 입시의 틀에 빼앗긴 채 버터내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사랑과 슬픔을 채울 수 있는 백지 답안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일상과 감정들이 진솔하게 그려져 있다.

동화출판공사 / A5신 / 288면 / 3500원

페레스트로이카 소련기행

김영희 지음

중앙일보에서 북방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자가 1989년부터 소련을 드나들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과 미국, 일본, 유럽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소련의 변화양상을 포괄적으로 기술한 책. 모두 15장으로 소련의 경제, 문화, 사회상, 민족분쟁의 실상, 그리고 시베리아에 사는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과 고르바초프의 면모 등을 기행문과 해설서 형식을 빌어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나남 / A5신 / 348면 / 4800원

아멜리

나타샤 피터스 지음 / 박옥수 역

중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주인공 아멜리가 2차대전과 중국혁명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는 인생역정을 그린 소설. 자의와는 무관하게 역사적 사건의 한가운데 서있게 되는 아멜리의 삶을 통해 역사와 개인의 삶이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가를 규명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념, 체제에 선행하는 사랑의 소중함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서 제시하고 있다.

문덕사 / A5신 / 432면 / 4800원

돼지일가

김수자 지음

'욕심 같아서는 세익스피어나 괴테처럼 장엄한 글을 쓰고 싶지만 내 그릇은 돼지 한마리를 담기에도 부족하다'고 적고 있는 저자의 첫 수필집. 돼지키우는 일을 업으로 하는 남편에게 시집와 16년간 그 일을 하며 살아 온 저자의 소박한 일상과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을 찾는 겸허한 자세 등을 읽을 수 있다. 저자는 88년 「문학정신」으로 등단, 「신동아」년픽션 현상모집에도 최우수 당선된 바 있다.

범우사 / A5신 / 208면 / 3500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法頂 지음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경전인 「숫타니파타」의 강론집. 숫타니파타(Sutta-nipāta)는 經의 集成이라는 뜻으로 팔리어로 된 '남전대장경' 중 '소부경전'에 수록돼 있다. 1,149수의 시를 70경에 정리하여 다섯장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 것 중에 첫째장에 속하는 열두개의 경전을 자유롭게 강론한 것을 모은 이 책은 영혼까지 울리는 고전읽기의 기꺼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샘터사 / A5신 / 266면 / 3200원

유리반지

루이제 린저 지음 / 김정애 옮김

엄격한 기독교적 가치질서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외부의 유희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성숙해 가는 한 소녀의 성장과정을 그린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 수도원의 성수반에서 피겨나가는 파문(유리반지)을 메타포로 하여 우주적 질서 속에서의 인생의 의미와 인간의 내면적인 자아성찰을 그려나간 작품이다. 작가특유의 간결하고 섬세한 문체가 돋보인다.

혜진서관 / A5신 / 212면 / 3200원

귀납논리학-선택과 승률

B. 스킴스 지음 / 김선호 옮김

귀납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쉽고 재미

있게 소개한 귀납논리학의 입문서. 전 7장으로 구성. 2·3·7장은 철학전공자에게 중요한 귀납에 관한 철학적 문제들을, 4장에서는 원인을 찾기 위한 밀의 방법을 소개하여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의 보충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각 절의 끝부분에 참고도서를 명기, 보충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광사 / A5신 / 320면 / 5000원

계간지

時調生活 (가을)

[특집] 중국작가순례

▲김호근 ▲김성호 ▲권원화 ▲송정환

[특별취재] 石泉 정우상 박사를 찾아서(유지화)

[논단] ▲전통문화와 시조(이응백) ▲시조 시인 曹雲의 세계와 그 인간(정종)

[시조가족 탐방기] ▲숨은 時調人을 찾아서(안금식 편)

[제6회 신인문학상] ▲시조부문: 계룡산에서(송봉은) ▲평론부문: 時調詩의 현대적 지평(김봉균)

[동인회 순례] ▲범씨 동인회

[시조짓는 밤] 유성규

[유렵기행시조] 내 영혼 순례의 달이(홍준오)

시조생활사 / A5신 / 250면 / 2500원

창작과 비평(겨울)

[좌담] 생태계의 위기와 민족민주운동의 사상(백낙청 / 김세균 / 김종철 / 이미경 / 김록호)

[논단] ▲'강압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최원식) ▲「장길산」과 역사적 진실성의 추구(강영주) ▲동독의 몰락과 사회주의 리얼리즘(김두규)

[시] 박정은 / 김종철 / 박석수 / 김해화 / 오봉옥 / 김영신

[문화시평] '범민족 통일음악회'에 다녀와서(안정숙)

[연속기획] 한국사회 계급론의 쟁점(4)

▲'맑스주의의 위기'와 계급이론의 재건(황태연) ▲핵의 위기(이삼성) ▲멕시코 혁명 80주년에 부쳐(이성형)

[소설] 윤정모 / 조성기 / 이남희

[서평] ▲나의 노래, 우리들의 노래(신경림) ▲진실과 전형의 문제(구중서) ▲분단시대를 산 두 사람의 통일논객(이진섭) ▲환경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이추경)

창작과 비평사 / A5신 / 412면 / 4500원

작가세계(겨울)

[조세희 특집] ▲문학적 연대기(구광본) ▲작가론(이동하) ▲작품론(장경렬 / 우찬제 / 이경호) ▲작가연구자료(이동하) ▲다시 읽는

문제작(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시] 이하석 / 최승자 / 유하

[소설] ▲하얀 저고리(장편분재1. 조세희)

▲우리 시대의 사랑. 2(조성기) ▲에오히푸스의 겨울(최용운)

[쟁점] 우리 문학 속의 페미니즘

▲여성시의 원천과 분만의 상상력(김경수)

▲여성적 글쓰기, 여성으로서의 읽기(권택영)

[논문] 작가의 관념적 오류와 소설적 진실(김윤식)

[해외작가] 고트프리트 벤(윤김 및 해설. 전영애)

세계사 / A5신 / 420면 / 4500원

문학과 사회(겨울)

【특집】김현과 그의 문학

[김현 비평] ▲김현 문학의 밑자리(정과리)

▲김현 혹은 열린 문학적 지성(성민엽) ▲르네의 바다(황현산)

[김현을 회고하며] ▲김현과 '문지'(김병익) ▲죽음 앞에서 나타 다리 썩기(이인성)

[유고] ▲일기초: 1989(김현)

[연보] ▲'뜨거운 상징'의 생애(홍정선)

[시] 정현중 / 김운배 / 백학기 / 최계선 / 정남식 / 엄원태

[소설] 임철우 / 이승우

[비평·논문] ▲합리성의 비합리성(박이문) ▲죽음의 신화적 구조(김진수)

[서평] ▲절망과 혼돈의 형태(권오룡) ▲집 없는 시대의 서정적 묘사와 그 전망(김현성)

문학과학사 / A5신 / 358면 / 4500원

자료

正書法資料

李升九 편저



새로 개정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에 맞춰 표기약속과 관습을 종합정리, '바른 글쓰기'에 도움이 되도록 역은 편람자료이다. 우리말과 글의 원칙과

용례를 정확히 알기 위한 종합적인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 책은 특히 출판 편집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표기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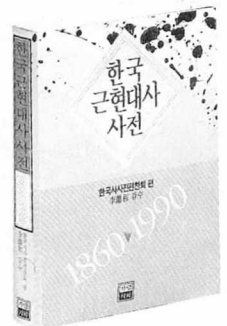
흔하게 쓰이는 맞춤법의 용례와 틀리기 쉬운 말의 실례를 비롯해서 국어의 가나 문자표기법과 물리·화학 용어 및 공학단위 등의 정밀한 부분까지 그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이 자료집은 '한자교양'에 비중을 두어 잘못 읽기 쉬운 한자, 잘못 쓰기 쉬운 한자, 두가지 음 이상의 한자, 찾기 힘든 글자의 檢字, 우리나라의 성씨 등에 이르기까지 조목 조목 열거함으로써 한글세대의 한자교정의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있다. 우리말 우리글을 바로쓰기에 앞장서야 할 출판관계자들에게 필요한 기본도서로 평가된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B5변형 / 1094면 / 13000원

화제의 책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위원회 엮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알기 위한 사전이 기획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선시대 동학이 창조된 1860년에서 한·소수교가 이뤄진 1990년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기였던 130

년간의 역사를 1천200여개의 항목으로 뽑아 엮은 이 책은 재야 사학자 이이화씨(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가 감수를 맡았다.

항목은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차례대로 개별사건과 인물, 제도와 문물 등을 통사의 형식으로 엮었는데, 책머리에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가나다순의 찾아보기를 덧붙였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사진 자료도 삽입돼 있어 흥미롭다.

이 사전은 특히 북한관련의 항목들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 부록에 담은 '역대3부요인표' '정당계통표'라든가 '남북한 주요경제지표' '한국근현대사연표' 등은 근현대로 이어진 우리나라 정치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가람기획 / A5신 / 592면 / 11000원

목록

'90 종합도서목록

종로서적 엮음



국내에서 간행(1990.5.30 현재)된 책들 가운데 종로서적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각 출판사에서 나온 목록을 총망라한 종합 도서목록이 모두 4권으로 묶여 나왔다.

제1권은 총류와 참고사전류, 정기간행물, 문고·전집류, 어린이책을 비롯한 중고학습서 목록을 실었으며 제2권은 인문·사회과학과 역사·종교분야, 제3권은 순수·기술과학 분야와 농학, 의학의 목록을 담았고, 제4권은 어학과 문학 예술분야의 도서목록을 수록했다.

각권에서의 총서나 문고·전집을 다시 주제별로 분류했고, 권마다 저자색인을 한글과 영문으로 나눠 찾아보기 쉽게 배려했다. 목록은 책이름의 가나다순을 원칙으로 했는데, 저자와 역자, 판형 및 면수 등을 차례로 밝혀놓았다. 종로서적은 이 목록을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정확한 서지분류를 계속 할 예정이며, 매년 연간도서목록을 발행목록의 증보판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종로서적 / A5신 / 392~956면 / 1200~1500원

